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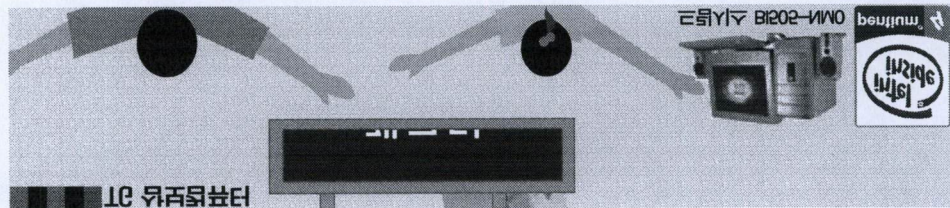
2002/07/22 14:50

여성지도자들 '장상 논란'에 입장 표명 ■

국내 여성계 인사 400여명은 최근 아들 국적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은 장상(張裳) 총리서리 문제와 관련해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모임을 갖고 장 총리서리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최초 여성총리 지명의 의미를 나누는 여성모임'으로 명명된 이날 모임에는 박영숙(朴英淑) 전 의원을 비롯 정치여성연대 대표, 강기원(姜基遠) 변호사, 정광모(鄭光謨) 소비자연맹 회장, 정현백(鄭鉉栢) 여성연합 대표, 은방희(殷芳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63명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범여성계 지도자들 0

의견올리기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장 서리가 여성이기 때문에 폄하되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를 받아서는 인대가 각별한 만큼 여성총리에 대한 평가가 '성(性) 편견'없이 객관적으로 이뤄져 사회 발전을 위한 긍정적·란다"고 29~30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 주문했다.

이들은 또 장 서리에 대해서는 "장남의 국적 문제 등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명쾌한 답변을 통해 해명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해 총리로서의 국가관과 역사관, 도덕성을 냉정하게 평가받으라"고 말했다.

김현자(金賢子) 전 의원은 "장 서리에 대한 논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장 서리가 인준무를 당당히 하도록 성원하자"고 촉구했다.

정희경(鄭喜卿) 전의원은 "한국사회에서 여성각료와 여성 고위직에 대한 사회의 평가는 매우 감정적이고 왔다"며 "더이상 여성 고위직 진출에 대한 사회적 '왕따'행위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非)이화여대' 출신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이인호(李仁浩)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장 서리 정현재 공직에 나가있는 공인 중에 얼마나 있겠느냐"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부수적인 시비거리 중심이 아니라 행능력을 총체적으로 검증하는 자리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여야 3당 대표를 방문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